

은 물론, 새 밀레니엄과 같은 시대를 맞이하며 재림의 시기에 대하여 지나치게 위기의식을 가지는 것도 잘못되었다. 또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 앞에서 로마서 12:1의 날마다 드리는 '영적 예배', 즉 합당한 섬김(reasonable service)을 등한히 하는 종말론은 경계하여야 한다. 특히 그리스도 α (알파)를 주장하여, 그리스도께 어떤 부족함이 있는 것처럼 가르치는 것은 큰 잘못이다. 우리는 맡겨진 임무를 신실히 수행하는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날마다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써 열심히 일하며 살아야 한다.

편집비평에 대한 반성

A Reflection on Redaction Criticism

임영호 교수

Prof. Dr. Young Hyo Im

- I. 서론
- II. 편집비평의 역사적 뿌리
- III. 편집비평의 기원과 정의
- IV. 편집비평에 대한 분석
- V. 편집비평에 대한 평가
- VI. 편집비평에 대한 복음주의적 사용
 1. 역사성의 변질
 2. 성경본문의 조화를 부인함
 3. 상이점을 설명하는 수단으로서의 풍유화
 4. 편집과정에 있어서의 저자의 부정확함에 대한 가정
 5. 성경본문의 명료성을 부인함
- VII. 결론

Abstract

Redaction Criticism has come into prominence in the 20th century largely through the works of Willi Marxen, Günther Bronkamm, and Hans Conzelmann on the synoptic gospels. It is based upon two other critical approaches to the Gospels - Source Criticism and Form Criticism. The prevailing theory of Source Criticism was the "two document theory," that is, Matthew used Mark and another source(Q) in composing his Gospel. Form Criticism seeks to get to the preliterate stage of oral tradition behind the written sources. Yet both Source Criticism and Form Criticism tended to fragment and atomize the Gospels.

Accordingly, Redaction Criticism arose to correct the onesidedness of the other two approaches. However, it should not be assumed that Redaction Criticism denies the insights of the other two approaches. On the contrary, Redaction Criticism has presupposition of the validity of both Source and Form Criticism. Thus, it is clear that Redaction Criticism invariably has inherited their presuppositions that the Bible is merely a human production and the historical Jesus cannot have performed the miraculous deeds attributed to Him in the Gospels. Certainly, this discipline is problematical because of its "creative" aspect. As a result of it, the questions about the Gospel's historical accuracy were raised.

Though we think that the value of Redaction Criticism lies in focusing attention once again on the evangelists as authors rather than as a

임영효, 고신대 및 동신대학원에서 석사학위(M. Div.) 취득.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에서 신약학으로 석사학위(Th.M.), 신교학으로 박사(D.Miss.) 수여. 현재 고신대학교 신학과 실원신학 및 신교학 담당교수로 재직. 저서로 「사도행전에서의 선교와 교회성장」(고신대출판부), 논문으로 "기독교대학과 영적성장", "초기한 국교회 성장요인" 외 다수

mere collectors of tradition, it seems that there is a proneness in this discipline to exalt the human writer more than the primary author, the Holy Spirit. Also it must be said that Redaction Criticism failed to realize the historical continuity between Jesus and the writers of Gospels. The understanding of the unbiblical presuppositions, antisupernatural biases and methodological assumptions behind Redaction Criticism as practiced by most scholars gave rise to a serious question about the basic nature of it.

Furthermore, most attempts of the so-called evangelical redaction criticism which tried to maintain the inspiration, inerrancy and historicity of the Bible have thus far been unsuccessful. Accordingly, it seems that the term "evangelical redaction criticism" is inappropriate for evangelicals because the use of the term may give others misunderstanding of it. That is to say, the use of the term may intimate that there is no problem in Redaction Criticism. By the use of the term, it may be possible for many others to accept it thoughtlessly. In fact, the term carries with it the non-historical presuppositions of the discipline.

Particularly, it should be recognized that because of its close connection with Source Criticism and Form Criticism this discipline inherited all their problems, and neglect of this essential connection cannot fail to lead to excessive confidence in such an approach. If we continue to use the term "Redaction Criticism" and some of its methodologies, it is possible for a evangelical to follow the pattern of radical redaction critics. As a result of it, even though he confesses inerrancy and historicity of the Scriptures, he will become to deny it

involuntarily. So we must always remember that making a little compromise and concession will bring about tremendous results at last. Also we must take a lesson from other evangelicals' mistakes.

Therefore, the major problems in Redaction Criticism must be considered:

First, Redaction Criticism has dependence on the Four-Document Hypothesis, that is, the theory that Matthew and Luke used four specific sources in composing their Gospels.

Second, there is Historical skepticism in Redaction Criticism.

Third, the redaction critics have too often refused any attempt to harmonize and in some cases absolutely deny the possibility of harmonizing parallel accounts of the same events and discourses in the Gospels.

Fourth, for redaction critics, it is impossible to reconstruct a theology of Jesus because they assume the emphases invented by the Gospel writers which are attributed to Jesus.

Fifth, most redaction critics seldom see the Gospels as the words of Jesus; rather they see them as theological modifications of the teachings of Jesus or as original creations of the Gospel writers themselves.

Sixth, it is evident that Redaction Criticism modified the grammatical-historical system of interpretation which has been the guideline among evangelical exegetes.

Consequently, it can be said that the evaluation on Redaction Criticism is inclined to the negative side because of its historical roots and non-historical erroneous presuppositions.

I. 서론

“최근 신약성경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비평’이라는 단어일 것이다.”¹⁾ “비평”이라는 말은 우리가 성경을 판단하는 자리에 앉아있음을 의미하는 것같은 그런 인상을 주고 있는데, 역사적인 배경에서 살펴볼 때 성경이 초자연적으로 영감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주장을 배격하는 학문에서 유래되어진 것이다.²⁾ 그러나 우리는 성경본문이 어떠해야만 할 것인가를 미리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서 바로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일 뿐이다. 동시에 우리는 인간적인 요소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에는 엄격한 주의를 가져야 한다.

Langdon Gilkey는 “성경은 신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것이며 하나님에 대해 증거하되 많은 오류와 실수들로 가득차 있으며, 은혜의 수단이 되 내용면에서는 참된 증거가 아니다”³⁾라고 언급한바 있다. 이런식으로 성경 비평학자들은 너무도 자주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의 문학작품으로 보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깊은 성경연구로부터 나오는 진정한 유익들을 수용해야만 하겠지만, 성경비평에서 대해서 아무 것도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편집비평(Redaction Criticism)을 주의깊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편집비평의 사용으로부터 말미암는 위험들을 인식하고 그것에 깔린 잘못된 전제들을 살펴보아야 한다. 먼저, 편집비평의 역사적 뿌리들을 살펴본 후에 편집비평의 기원과 정의를 다룰 것이다. 그리고 편집비평의 내용들과 그 방법론들을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편집비평의 주요 문제

1) Simon J. Kistemaker, *The Gospels in Current Study*,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72, p. 35.

2) 비평(criticism)의 의미와 그 역사적 유래에 대하여서는 George Eldon Ladd의 저서 *The New Testament and Criticism*의 제2장을 참조하라.

3) Clark H. Pinnock, *The Scripture Principle*, San Francisco: Harper & Row, Publishers, 1984, p. 91.

점들을 논의한 다음 그것의 복음주의적 사용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II. 편집비평의 역사적 뿌리

편집비평은 신약성경 연구역사에 갑자기 등장한 독립된 연구방법이 아니다. 편집비평의 뿌리는 양식비평(Form Criticism : 독일어로는 Formgeschichte)과 자료비평(Source Criticism)에까지 소급된다.

특히 자료비평은 19세기 동안 광범위하게 논의되었으며, 독일의 합리주의의 성장과 관계를 가지고 있다.⁴⁾ Charles B. Puskas는 자료비평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자료비평은 신약성경이 구전 전통과 성문화된 전통들에 대한 인간적 수집의 산물이라는 사실을 전제한다.”⁵⁾ 1세기 이상에 걸쳐서 자료비평이라는 표현이 널리 사용되어 왔다. 이 비평연구가 결국 신약성경학자들을 만족시키지 못했을 때, 양식비평(Form Criticism)이 1920년대에 알려지게 되었다.⁶⁾

세 독일 신학자들이었던 칼 루드비히 스미트(Karl Ludwig Schmidt), 마르틴 디벨리우스(Martin Dibelius), 루돌프 볼트만(Rudolf Bultmann)은 복음서 기자들이 각각의 복음서 기사를 기록한 형식을 연구했다. 그들은 각각의 복음서 이야기들은 초대 교회에 구전으로 회람되었을 것이라고 가정했고, 그들은 초대 교회가 예배와 교리교육과 기독교 신앙의 변호를 위해서 생겨난 그런 필요들을 충족 시켜주는 이야기들만을 받아들였다고 가정했다.⁷⁾ 그러므로 초대 교회의 신앙이 이러한 복음서 단위들(gospel

units)로 표현된 것으로 보게 되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양식비평학자들은 초대 교회를 복음서 단위들의 편집자로 간주한다.⁸⁾

그러나 양식비평의 등장 약 30년 후 신약성경 학자들은 이 비평이 더 이상 복음서 형성에 대한 의문들을 해소시켜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학자들은 세 공관복음서들의 내용을 대조시켜 복음서의 저자가 과연 누구인지를 비교해 보았다.⁹⁾ 그리해서 위에서 언급된 이러한 양식비평 연구의 결과로 편집비평은 등장하게 되었다. 결국 1950년대에 편집비평은 양식비평의 하부분과(subdiscipline)로 태어난 것이다.¹⁰⁾

편집비평의 역사적 뿌리에 대한 이 간략한 개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편집비평이 하나의 역사적 분과로서 자료비평과 양식비평으로부터 서로 분리할 수 없이 연결되어 있으며 편집비평이 그것의 기초로서 이전의 비평들 위에서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편집비평 또한 성경은 단지 인간적인 산물에 불과하다는 앞선 비평들의 전제를 물려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두 분과들과 같이 이 편집비평도 복음서들의 성령의 영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리를 남겨두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

III. 편집비평의 기원과 정의

편집비평은 공관 복음서들에 대한 Günther Bornkamm, Hans Conzelmann, Willi Marxsen 등의 연구를 통해 20세기에 크게 부각되기 시작했다. “편집비평”이라는 말은 Willi Marxsen이 처음 사용한 독일의

4) “The Evangelical and Redaction Criticism in the Synoptic Gospels” in *Talbot Review*, Vol. 1, No. 2, Summer, 1985, p. 6. 올 보라.

5) Charles B. Puskas, *An Introduction to the New Testament*, Peabody, Massachusetts: Hendrickson Pub., 1989, pp. 89-90.

6) Simon J. Kistemaker, *op. cit.*, p. 35.

7) *Ibid.*, p. 40.

8) *Ibid.*, pp. 42-43.

9) *Ibid.*, p. 50.

10) “The Evangelical and Redaction Criticism in the Synoptic Gospels”, in *Talbot Review*, Vol. 1, No. 2, Summer, 1985, p. 6. 편집비평의 출현에 대해 George B. Caird는 “편집비평의 지지자들의 대부분은 볼트만의 제자들인데, 이는 약 30년 동안의 양식비평에 대한 거의 배타적인 집중에 대한 불가피한 반작용으로 등장한 것이다”. “The Study of the Gospels”, in *The Expository Times*, Vol. 87, March, 1976.

Redaktionsgeschichte에서부터 유래했다.¹¹⁾ 이 분과는 또한 “구성비평 (composition criticism)”으로도 불려진다.¹²⁾

편집비평 학자들 중 첫 신학자는 귄터 보른캄(Günther Bornkamm)인데, 그는 1948년의 논문 “폭풍을 잠잠케 한 마태복음 기사”로 이 편집비평 운동을 시작했다. 이 논문에서 그는 마태가 제자도(discipleship)의 방향으로 그 사건을 변경시켰고 재해석했다고 주장했다.¹³⁾ 마태는 “선생”(teacher : 마가복음), “스승”(master : 누가복음)과는 대조적으로 마태는 “주님”(Lord)이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예수의 신적인 위엄에 대한 존경을 표현했다는 것이다. 보른캄에 의하면 이 용어는 제자도의 신앙고백을 의미하는 것이다.¹⁴⁾

두 번째 학자인 한스 콘젤만(Hans Conzelmann)은 “성(聖) 누가의 신학”이라는 책을 1954년에 출간했다. 그는 누가는 역사가라기보다는 자기 의식적인 신학자라고 주장했다.¹⁵⁾ 그러므로 지리적이고 역사적인 세부사항들은 누가의 신학에 있어서 부수적이고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렸다.

세 번째 신학자인 빌리 막센(Willi Marxsen)은 1959년에 “전도자 마가”라는 책을 저술했다. 그는 복음서들에 대한 편집비평적 연구의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여자로 불린다.¹⁶⁾ 그는 신약성경에 대한 비평의 발전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첫째, 복음서들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정황(Sitz im Leben)이 있다. 둘째, 양식비평학자들이 주장하듯이, 초대 교회의 삶의 정황이 있다. 셋째, 편집비평 학자들이 보여주기를 원하듯이, 복음서 기자들의 삶의 정황이 있다.¹⁷⁾ 그러므로 Marxsen은 양식비평은 복음서 기자들의 삶의 정황을 무시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양식비평학자들의 사회학적 관심으로

인해 각 복음서 기자들의 독특한 관점들을 보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Marxsen에게 있어서 이 세 번째 복음서 기자들의 삶의 정황을 탐구하는 것은 복음서 기자들이 그들이 사용할 수 있었던 복음서 자료들을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알아보는 것과 관련 되어진다.¹⁸⁾ 또한 그는 복음서 기자들의 신학과 초대 교회 공동체의 신학을 구분하기 위해 “Redaktionsgeschichte(편집비평)”이라는 말을 만들어 내었다.

그러므로 편집비평의 정의에 대하여 Robert Thomas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편집비평은 “복음서 기자들이 그들의 자료들을 가지고 창조적으로 편집한 그들의 작품들을 분석함으로써 그 복음서 기자들의 관점들을 결정하려고 하는 성경비평 방법이다.”¹⁹⁾

IV. 편집비평에 대한 분석

위의 정의로부터 몇 가지 추론들을 이끌어 낼 수 있으며 또한 편집비평적 연구과정에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음을 볼 수 있다.

첫째, 편집비평은 구전 혹은 성문화된 자료들의 존재를 가정하고 그 두 자료들 사이의 상호 의존성을 발견하려는 자료비평의 결과들에 근거하고 있다.²⁰⁾ 그렇기에 편집비평은 저자의 자료사용을 연구함으로써 이미 자료비평

11) Grant R. Osborne, *Redaction Criticism in New Testament Criticism & Interpretation*, Grand Rapids : Zondervan Pub., 1991, p. 203., edited by David Alan Black & David S. Dockery.

12) Norman Perrin, *What is Redaction Criticism?*, London: SPCK, 1970, p. 1.

13) Grant R. Osborne, *op. cit.*, p. 201.

14) Simon J. Kistemaker, *op. cit.*, p. 54.

15) *Ibid.*, p. 202.

16) Robert H. Stein, *The Synoptic Problem*, Grand Rapids : Baker Book House, 1987, p. 233.

17) Simon J. Kistemaker, *op. cit.*, p. 55.

18) Robert H. Stein, *op. cit.*, p. 234.

19) “Redaction Criticism: Is it Worth the Risk?” in *Christianity Today*, October 18, 1985, p. 8-10. 편집비평에 대하여 Norman Perrin은 “전해져 내려온 자료들의 수집, 정리, 편집, 변경 그리고 초대 기독교의 전통 안에서 새로운 자료들의 구성 혹은 새로운 형식의 형성에 나타난 그 저자의 신학적인 동기를 연구하는 것에 관심가지는 분야이다”라고 말한다. *op. cit.*, p. 1. Scot McKnight는 “편집비평은 저자의 신학적인 관점과 배경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성문화된 자료로부터 그가 사용한 전통들에 대한 그 저자의 특별한 기여를 알아내기 위한 역사학자들의 연구분과이다”라고 언급한다. *Interpreting the Synoptic Gospels*, Grand Rapids : Baker Book House, 1988, p. 84.

20) Grant R. Osborne, *Redaction Criticism*, p. 218. 을 보라. 또한 Robert H. Stein은 자료비평을 편집비평학자들의 가장 중요한 도구로 불렀는데, 이는 복음서 기자들이 그들의 자료에 도입하고자 했던 변화들이 그 해석자를 복음서 기자들의 신학적 관심사들로 인도하기 때문이었다. *The Synoptic Problem*, pp. 143-151.

을 전제하고 있지만 복음서 기자의 작품에만 집중함으로 이것보다 더 나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보통 편집비평 학자들은 두 가지의 주요자료들(two primary sources), 곧 마가복음과 다른자료(Q)가 있었다고 생각한다.²¹⁾ 그러므로 편집비평 학자들은 각 복음서 기자가 그들의 자료들에 가한 편집과정에서의 변경을 연구한다.

둘째 편집비평은 양식비평과 전통비평의 결과에서 시작한다. 양식비평은 최종적인 복음서 양식 뒤에 있는 진정한 전통의 기원을 발견하려고 하는 반면, 전통비평은 가장 초기의 자료에서부터 복음서에 나타난 최종적인 형태에 이르기까지의 발전을 발견하려고 한다.²²⁾ 편집비평은 편집과정의 최종단계에 초점을 둔다. 즉 복음서 기자들이 가한 변화에 관심을 둔다.

셋째 편집비평은 저자를 단순한 역사가 혹은 수집자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신학자로 강조한다. 복음서들의 각 단편들을 비교하므로 한 저자의 손길을 발견해 낸다.²³⁾ 편집비평은 그 저자의 신학적인 동기가 자료들의 수집과 정리뿐 아니라 복음서의 각 단편들의 변화, 조합, 창조에도 나타난다고 가정한다. 편집비평 학자들은 복음서 단편들의 의미와 역사성보다는 그 저자의 해석적 관점에 강조를 둔다.²⁴⁾ 편집비평은 한 본문의 의미는 그 저자의 의도에 의해 주어지는 것으로 가정한다.²⁵⁾

넷째 편집비평은 복음서의 저자를 자신의 고유한 권위에서 있는 창조적 인물로 간주한다. 일반적으로 편집비평 학자들은 복음서의 기록자는 복음전통들(gospel traditions)을 변경 혹은 미화하고 그 복음전통에 자신의 신학적인 해석을 가미하기 위해서는 심지어는 사건의 역사성으로부터도 이탈했을 수도 있다고 본다.²⁶⁾ 사실 이 가정이야말로 편집비평의 가장 현격한 특

징이라 할 수 있다.

다섯째 편집비평은 저자 자신의 신학적인 공헌을 전달된 자료들의 그것과 구별하려고 한다.²⁷⁾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사실은 자료비평과 양식비평의 결과들을 받아들였음을 의미한다.

요약하자면 편집비평에는 세 가지 본질적인 제한된 목적이 있다. Robert H. Stein은 이를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1. 복음서 기자들이 그가 사용한 자료들에 둔 독특한 신학적 강조점들이 무엇인가? 2. 자신의 복음서를 기록함에 있어서 그 복음서 기자는 어떤 신학적 목적을 가졌는가 3. 각 복음서 기자가 그의 복음서를 기록할 때의 Sitz-im-Leben은 무엇이었는가?²⁸⁾

V. 편집비평에 대한 평가

편집비평의 가장 긍정적인 기여라 할 수 있는 것은 편집비평 학자들은 복음서를 그것의 총체성(總體性) 가운데서 본다는 사실이다. 양식비평학자들은 복음서 기자들을 이름 모를 어떤 사람들로 만들었지만 편집비평 학자들은 복음서 기자들을 저자들로서 복권시켰다.²⁹⁾ 편집비평 학자들은 복음서 기자들은 어떤 신학적인 주제를 가지고 기록하였고, 기록 목적에 있어서도 변이를 보인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편집비평은 보편적 인정을 결코 받지 못했다. 편집비평의 문제점에 대해서 Simon J. Kistemaker는 다음과 같이 적절하게 말한다: “복음서 안에서 각 기자의 고유한 작품을 발견하는 기쁨과 만족 속에서도 편집비평 학자들은 너무 과도하고도 철저하게 자신의 방법을 적용시킨 나머지 일면적인 강조를 한 것으로 여겨진다.”³⁰⁾ 그러므로 편집비평의 주요 문제점들은

21) Grant R. Osborne, *op. cit.*, p. 218.

22) Grant R. Osborne, *Redaction Criticism*, p. 200.

23) Simon J. Kistemaker, *op. cit.*, p. 57.

24) *op. cit.*, in *Talbot Review*, p. 7.

25) E. P. Sanders and Margaret Davies, *Studying the Synoptic Gospels*, London: SCM Press, 1989, p. 222.

26) *op. cit.*, in *Talbot Review*, p. 7.

27) *op. cit.*, in *Talbot Review*, p. 7.

28) Robert H. Stein, *op. cit.*, p. 235.

29) Simon J. Kistemaker, *op. cit.*, p. 108.

30) *Ibid.*, p. 58.

지적되어야만 한다. 먼저, 편집비평은 4문서 가설(the Four-Document Hypothesis), 곧 마태와 누가는 자신의 복음서를 구성함에 있어서 특정한 자료들을 사용했다는 가설에 의존하고 있다.³¹⁾ 그러나 많은 복음주의자들은 초대 교회의 관점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초대 교회가 증거하는 주장은 “마태가 자신의 개인적 회상에 근거하여 그의 복음서를 먼저 기록하였고, 그 다음 누가가 바울로부터 나온 정보와 수많은 성문화된 자료와 구전전통에 대한 자세한 연구를 통하여 자신의 복음서를 기록하였고, 마가는 베드로의 설교에 주로 근거하여 자신의 복음서를 기록하였다”는 것이다.³²⁾

둘째 편집비평에는 역사적 회의주의(historical skepticism)가 있다.³³⁾ 편집비평 학자들에 의하면 저자들의 신학적인 목적에 관심을 집중하다 보면 정확한 역사성으로 성경문서를 기록한 가능성을 자동적으로 배제하게 된다. 편집비평 학자들에게 있어서 편집적이라고 간주되는 것은 비역사적인 것이다.³⁴⁾ 그들은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연대기적, 지리적인 언급들은 복음서 기자들의 신학적인 목적과 일치되는 한에 있어서만 의미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복음주의자들은 신학적인 목적과 역사적 정확성은 언제나 함께 간다고 믿는다. “복음서들이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삶, 죽음, 부활에 대한 완전한 전기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³⁵⁾

셋째 편집비평 학자들은 너무도 자주 복음서들에 기록되어 있는 병행된 동일한 사건과 기사들을 조화시켜 보려는 어떠한 시도도 부인하며 어떤 경우에는 그 가능성조차도 절대적으로 부인한다.³⁶⁾ 그러나 우리는 예수께

31) Grant R. Osborne, *op. cit.*, p. 213.

32) *op. cit.*, in *Talbot Review*, p. 9.

33) Grant R. Osborne, *op. cit.*, p. 213.

34) Scot Mcknight, *Interpreting the Synoptics Gospels*, Grand Rapids : Baker Book House, 1988, p. 89.

35) Simon J. Kistemaker, *op. cit.*, p. 59. 이 역사성에 대하여 Donald Guthrie는 “모든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전달하는 도구로서 사건들을 바라 본 사람들이었기에 그 사건들이 신학적인 관심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고 적절히 언급한다. *New Testament Introduction*,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1964, p. 219.

36) *op. cit.*, in *Talbot Review*, p. 9.

서는 분명히 동일한 이야기에 대한 여러 가지 변이들을 사용하시고 여러 경우에 말씀하신 순회하는 선포자였음을 가정해 볼 수 있다.³⁷⁾ 물론 서로 병행되는 동일한 본문들을 조화시키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나, 이것이 전체적으로 조화시키려는 가치를 평가절하하지는 않는다.

넷째, 편집비평 학자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학을 재구성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이는 그들이 예수께서 직접 강조하신 것이라고 복음서 기자들이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이 창안해낸 것이라고 가정하기 때문이다.³⁸⁾ 그러나 복음주의자들은 복음서들의 신학은 예수님 자신에 의한 것으로 본다.

다섯째 대부분의 편집비평 학자들은 결코 복음서들을 예수님 자신의 말씀으로 보지 않는다; 대신 그들은 복음서들을 예수 자신의 가르침에 대한 신학적인 변형 혹은 복음서 기자들 자신의 독창적인 창작물로 간주한다.³⁹⁾ 그러나 복음주의자들은 성령께서 복음서 기자들 배후에 계셨기에 성령께서 원래적 의미의 저자이고 복음서 기자들은 이차적인 의미에서의 저자라고 믿는다. 또한 복음주의자들은 성경영감의 교리가 성경본문은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될 당시의 참된 의미를 그대로 담고 있다는 사실을 보증한다고 믿는다.

여섯째, 편집비평은 복음주의적 주석을 특징지워왔던 문법적-역사적 해석 체계를 변경시키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⁴⁰⁾ 예를 들어 Marxsen은 “갈릴리”라는 지명은 지리적인 의미로 이해될 것이 아니라, 신학적인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 사실을 보여주려 했다.⁴¹⁾

결론적으로 편집비평에 대한 평가는 그것의 역사적 뿌리와 비역사적 잘못된 전제들로 인해 부정적인 측면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말할 수 있다.

37) Grant R. Osborne, *op. cit.*, p. 214.

38) *op. cit.*, in *Talbot Review*, p. 9.

39) *op. cit.*, in *Talbot Review*, p. 9.

40) *op. cit.*, in *Talbot Review*, p. 9.

41) Simon J. Kistemaker, *op. cit.*, p. 58.

VI. 편집비평에 대한 복음주의적 사용

복음주의자들은 최근 1980년대에 편집비평에 대해 진지한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 일부 복음주의자들은 편집비평의 형식을 활용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Robert L. Thomas, Norman Geisler, H. Lindell, John Warwick Montgomery와 같은 몇몇 복음주의자들은 편집비평은 사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Grant R. Osborne, David L. Turner, D. A. Carson, Kenneth S. Kantzer, S. S. Smalley 등과 같은 다른 학자들은 편집비평의 조심스러운 사용을 지지한다. Robert H. Gundry, William L. Lane, Robert A. Guelich, Norman Perrin, I. Howard Marshall과 같은 또 다른 학자들은 비평적 방법론으로서 편집비평을 강하게 지지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질문은 “복음주의적인 편집비평(evangelical redaction criticism)”이 가능한지에 관한 것이다. 확실히 편집비평이 사용될 수 없다고 보는 복음주의자들은 그것은 자기모순적이라고 주장한다.⁴²⁾ 편집비평에 대해 우호적인 학자들은 복음주의적 편집비평의 적합성을 변호한다.

이 두 입장 사이의 큰 차이에 대한 가장 큰 이유는 편집비평이 명백히 정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⁴³⁾ 만약 “복음주의적 편집비평”이라는 말이 편집비평의 의미의 한 부분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편집비평 학자들의 과격한 주장들을 배제할 수는 없게 되는데, 이는 편집비평 학자들의 경향이, 심지어 복음주의적인 학자들까지도, 복음서 기자들에게 “창조적 활동”을 부여하기 때문이다.⁴⁴⁾

이 두 입장 차이의 또 다른 이유는 “복음주의적”이라는 말의 의미에 대

해 서로 다른 견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⁴⁵⁾ 이 “복음주의적인 편집비평”이라는 용어를 선호하는 학자들은 성경의 무오보다는 성경적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좋아한다.⁴⁶⁾

그러므로 “복음주의적 편집비평”이라는 말 아래서 행해지는 어떤 해석학적인 원리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1. 역사성의 변질

편집비평적 전제들로부터 결과되어진 가장 큰 충격은 바로 성경의 역사성에 대한 것이라 할 수 있다.⁴⁷⁾ 복음서 기자들의 신학적인 선입견이 성경의 역사성에 앞서 강조되고 때로는 그 역사성을 부인하기까지 되어졌다.⁴⁸⁾ 오직 편집비평적인 분석을 통해서만 모든 본문이 역사적인지 역사적이지 않은지가 결정되게 되었다.

William L. Lane은 이 역사적 회의로 기울어지는 경향성을 잘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⁴⁹⁾ 그는 막 2:10의 “주석적 성격”을 말한다. 이것으로 그는 예수 자신의 말씀으로 돌린 몇몇 말씀들의 실제 선포자가 누군지를 밝혀 내 고자 했다.⁵⁰⁾ 그에 의하면 이 주석적 성격은 마가의 창작물이다. 그는 병 고치는 기적에 있어서 예수께서는 10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죄사함에 대해서는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나아가 Robert H. Gundry가 마태복음의 2장의 동방박사의 등장장에 대해 설명한 것을 읽어보게 되면 마태가 역사적인 관점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의심하게 될 것이다.⁵¹⁾ 또 다른 예는 마 28:19에 대한 설명인데, 그는

45) Robert L. Thomas, *The Hermeneutics of Evangelical Redaction Criticism*, p. 447.

46) *Ibid.*, p. 448.

47) *Ibid.*, p. 449.

48) *Ibid.*, p. 449.

49) *Ibid.*, p. 449.

50) William L. Lane, *Commentary on the Gospel of Mark*, Grand Rapids: Eerdmans, 1974, p. 7.

51) Robert H. Gundry, *Matthew, a Commentary on His Literary and Theological Art*, Grand Rapids :

42) Robert L. Thomas, “The Hermeneutics of Evangelical Redaction Criticism” in *Journal of the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Vol. 29, No. 4, December 1986, p. 447.

43) *Ibid.*, p. 447.

44) Robert L. Thomas, “Another View” in *Christianity Today*, October 18, 1985, p. 8-10.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마태는 삼위일체론을 강조하기 위해 예수의 세례에 대한 기사를 편집하였다. … 그러므로 마태가 지금의 마 28:19의 삼위일체론적 세례공식을 창안한 것 같다.”⁵²⁾ Gundry의 관점에서 보면 성경본문의 역사성은 첫 전제가 아니라는 사실은 명백하다. 그런 입장은 문법적-비평적 해석 방법이라 불릴 수 있는데, 왜냐하면 역사는 언제나 이차적인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⁵³⁾

2. 성경본문의 조화를 부인함

복음주의 편집비평은 복음서들간의 조화라는 원칙을 수용하지 않는 듯이 보인다. 복음서 사이의 두 병행되는 구절 사이의 명백한 불일치가 존재한다면, 복음주의적 편집비평 학자들의 보통의 반응은 그것을 하나 혹은 두 기사들의 편집적인 변화로 설명한다.⁵⁴⁾ 그러나 우리는 먼저 두 구절 사이의 불일치를 서로 조화시킬 수 있는 해결책이 존재할 가능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Gundry는 성경본문을 이렇게 조화시키고자 하는 시도는 분명 이미 구시대적인 것이라고 판단한다.⁵⁵⁾ 또한 I. Howard Marshall의 견해도 Gundry의 견해와 유사하다.⁵⁶⁾ 그들은 공관복음서들을 조화시키고자 하는 어떤 시도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보다는 두 병행하는 구절들 사이의 차이점들을 더 극대화시키는데 주력하는 것 같다.⁵⁷⁾

3. 상이점을 설명하는 수단으로서의 풍유화

Eerdmans, 1982, p. 30.

52) *Ibid.*, p. 596.

53) Robert L. Thomas, *op. cit.*, p. 451.

54) *Ibid.*, p. 452.

55) Robert H. Gundry, *op. cit.*, p. 639.

56) I. Howard Marshall, *Commentary on Luke*, Grand Rapids: Eerdmans, 1978, p. 227.

57) Robert L. Thomas, *op. cit.*, p. 453.

복음주의적 편집비평의 또 다른 해석학적 특징은 복음서 기자들이 알레고리칼한 기술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함으로 명백한 차이점들을 피하려는 경향성을 지닌다는 사실에 있다.⁵⁸⁾ Lane에 의하면 왜 마가가 가버나움 주변의 지역을 “광야”(막 1:35)로 잘못 불렀는지를 마가의 “광야-신학”으로 설명할 수 있다.⁵⁹⁾ Lane은 이러한 지리적인 부정확함은 예수께서 고독의 장소를 찾으셨다고 말하는 마가 특유의 기록법에서 나온 것으로 설명한다. Robert L. Thomas는 그런 난해점에 대한 풍유적인 설명은 자주 그 비평학자의 마음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저자 자신의 주제라고 주장된 것으로부터 나온다고 지적하고 있다.⁶⁰⁾ 이 풍유에 대한 이러한 경향성이 문법적-역사적 접근법을 대신할 수 있는 접근법으로 간주될 수는 없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4. 편집과정에 있어서의 저자의 부정확함에 대한 가정

복음주의적 편집비평의 또 다른 특징적인 경향성은 열등한 편집과정을 가정한다는 것이다. 복음주의적 편집비평 학자들은 저자들은 인간들이며 성령에 의한 영감도 그들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문학적 오류를 범한 것을 막지는 못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이러한 부정확한 것들은 편집비평적인 분석에 의해 처방된 교정하는 조치들을 필요로 한다고 가정한다.⁶¹⁾

이러한 맥락에서 Marshall은 누가복음 1:34을 누가의 추가된 편집물로 간주하면서 역사성을 부인한다.⁶²⁾ 마가복음 2장을 주석하면서 Lane은 이 본문의 “어색한 문장구조”는 마가의 작품이라 말한다.⁶³⁾ 분명 성령에 의해

58) Robert L. Thomas, *op. cit.*, p. 453.

59) William L. Lane, *op. cit.*, p. 81.

60) Robert L. Thomas, *op. cit.*, p. 454.

61) *Ibid.*, p. 454.

62) I. Howard Marshall, *op. cit.*, p. 69.

63) William L. Lane, *op. cit.*, p. 97.

영감된 성경을 “어색한” 문장구조를 가진 것으로 부르는 것은 심각하게 그릇된 일이다. 그러므로 문법적-역사적 설명에서보다는 편집적-비평적 원칙에 의한 경우가 복음서 기자들의 부정확함을 쉽게 수용하게 된다고 말할 수 있다.⁶⁴⁾

5. 성경본문의 명료성을 부인함

복음주의적 편집비평은 성경은 일반 독자들에게 의해 이해될 수 있도록 기록되었다는 원칙을 무시한다. 그들은 성경본문에 많은 문학적인 표시들이 존재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 Gundry는 마 2:2의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을 마태의 독창적인 편집으로 돌린다.⁶⁵⁾ 그러므로 이 표현은 마태가 그의 독자들이 알아차릴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편집하여 삽입한 것으로, 이는 바로 성경본문의 비역사성에 대한 일종의 문학적인 표시가 되는 것이다. 이 점에서 이와 같은 Gundry의 입장은 복음주의적인 편집비평이 성경의 명료성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명백하게 보여준다.

그러므로 만약 위에서 언급된 복음주의적 편집비평과 문법적-역사적 주석방법을 비교해 본다면 두 가지 방법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지는 데, 이는 두 가지 입장이 역사성에 대해서 서로 상이한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몇몇 복음주의 학자들은 두 방법이 서로 양립하지 않는다고 보지는 않는다.

특히 Grant R. Osborne은 두 주석방법 사이의 양립성을 주장하는 복음주의자들 중 대표적인 신학자로 불린다.⁶⁶⁾ Osborne은 편집비평의 위험한

요소들은 피할 수 있으며, 복음서에 대한 바른 연구를 위해서는 편집비평의 뉘앙스를 가진 형식을 채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믿는다.⁶⁷⁾ 그는 또한 편집비평을 문법적-역사적 방법의 도구라고 불렀다.⁶⁸⁾ 반대로 John Warwick Montgomery는 Osborne의 바램은 결코 결실을 맺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한다.⁶⁹⁾ Osborne은 편집비평에 대해서 매우 낙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는 “문제들 대부분은 편집비평이 그 자체가 목적이 되었을 때에 발생한다”고 말한다.⁷⁰⁾ 그러나 편집비평이 그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더라도 그 비평을 사용한 사람은 급진적인 편집비평 학자들의 많은 그릇된 가정들로 쉽게 빨려들 수 있다. Norman Geisler는 정통주의는 교리적인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방법론적인 관심까지도 포함한다고 바르게 지적했다.⁷¹⁾ 더욱이 그러한 비역사화시키는 접근법은 분명 성경의 무오교리에도 맞지 않는다. 그러므로 편집비평에 호의적이어서 그 방법론을 철저히 적용하는 신학자들의 입장은 심각하게 그릇된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사실은 분명한 것처럼 보인다.

VII. 결론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편집비평(Redaction Criticism)은 주로 공관복음서에 대한 빌리 막센, 쿤터 보른캄, 한스 콘젤만의 저서들을 통해 20세기에 유행하게 되었다. 그것은 자료비평(Source Criticism)과 양식비평(Form

64) Robert L. Thomas, *op. cit.*, p. 456.

65) Robert H. Gundry, *op. cit.*, p. 27.

66) Grant Osborne은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에서 신약을 가르친다. 그는 신약성경 비평에 대한 몇몇 논문들을 발표한 바 있다. 그 논문들 중에서는 “Redaction Criticism and the Great Commission : A Case Study Toward a Biblical Understanding of Inerrancy,” in *Journal of the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JETS)*, Vol. 19, 1976, pp. 73-85 ; “The Evangelical and Redaction Criticism : Critique and Methodology,” in

JETS, Vol. 22, 1979, pp. 305-322; “Round Four: The Redaction Debate Continues,” in *JETS*, Vol. 28, 1985, pp. 399-410 등이 있다.

67) Grant R. Osborne, “Round Four: The Redaction Debate Continues,” in *JETS*, Vol. 28, 1985, p. 405.

68) *Ibid.*, p. 404, 407-408.

69) David L. Turner, “Evangelicals, Redaction Criticism, and The Current Inerrancy Crisis” in *Grace Theological Journal*, Vol. 4, No. 2, Fall, 1983, p. 277.

70) Grant R. Osborne, *op. cit.*, p. 407.

71) David L. Turner, *op. cit.*, p. 284.

Criticism)이라는 복음서에 대한 다른 두 비평적 접근법에 기초해 있다. 자료비평이 말하는 주된 이론은 마태가 그의 복음서를 기록할 때에 마가와 다른 자료(Q)들을 사용했다는 “두 문서설(two document theory)”이다. 양식비평은 기록된 자료들 뒤에 있는 구전전통(oral tradition)의 전(前)문화적인 단계에 도달하고자 하는 비평이다. 그러나 양식비평과 자료비평은 모두 복음서들을 분해시켜 원자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편집비평은 서로 다른 이 두 접근법의 일면성을 교정하기 위해 등장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편집비평이 이 두 접근법의 입장들을 부인한다고는 생각해서는 안된다. 반대로 편집비평은 자료비평과 양식비평의 타당성이라는 전제를 언제나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편집비평은 성경은 단지 인간의 작품이며 실제의 역사적 예수는 복음서에서 그가 행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 기적들을 행하지 않았다는 두 비평의 전제들을 고스란히 물려받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⁷²⁾ 확실히 이 편집비평은 그 “독창적”인 측면으로 인해 문제시된다. 이것으로 인해 복음서의 역사적 정확성에 대한 의문들이 제기되었다.

편집비평의 가치는 각 전통들을 단순히 모은 수집가로서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의 저자로서의 복음서 기자에게 관심을 집중케 했다는 사실에 있다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편집비평은 본래의 성경저자이신 성령보다는 지나치게 인간 저자를 격상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보인다. 또한 편집비평은 예수와 복음서 기자들 사이의 역사적 연속성을 인식하는데 실패했다는 사실도 지적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편집비평 학자들에 의해 행해지고 있는 편집비평의 뒤에 숨어있는 비성경적인 전제들(unbiblical presuppositions), 반초자연적인 선입견들(antisupernatural biases), 그리고 방법론적인 가정들(methodological assumptions)은 결국 성경의 근본적인 본질 자체에 대한 심각한 회의론을 제기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나아가 성경의 영감, 무오, 역사성을 주장하려고 하는 소위 복음주의적 편집비평이라 불리는 대부분의 시도들도 그다지 성공적이지 않다. 그러므로 “복음주의적 편집비평”이라는 용어는 복음주의자들에게는 부적절한 말인데, 이는 그 용어가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즉 그 용어 자체는 편집비평에는 어떠한 문제도 있지 않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한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많은 다른 사람들은 편집비평을 신중하게 생각해 보지도 않고서 수용하게 될 것이다. 사실상 그 용어는 편집비평이 안고 있는 비역사적인 전제들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자료비평과 양식비평과의 밀접한 관련성으로 인해 이 편집비평은 앞의 두 비평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대로 안고 있으며, 이 두 가지 앞선 비평들과의 본질적인 관련성을 무시하는 것은 결국 편집비평에 대한 과도한 신뢰를 낳게 된다. 우리가 계속하여 “편집비평”이라는 말과 그 방법론 중 일부를 사용할 경우 복음주의자들도 그 급진적인 편집비평 학자들의 접근 방식을 따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 결과 어떤 복음주의자가 성경의 무오와 역사성을 고백하면서도 무의식 중에 그것을 부인하게 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편집비평에 대해 조그만한 타협이나 양보를 할 경우 그것은 결국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복음주의적 편집비평 학자들의 실수에서도 교훈을 얻어야 한다.

이제 편집비평에 대해서 결론을 맺으면서 우리는 회의적이고 비판적인 가정들이 아니라, 문법적 원칙들과 역사의 사실들이 그 본문의 참된 의미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한다.

72) op. cit. in Talbot Review, p. 7.